

# '예수가 우릴 구원하심에 차별을 두었는가?' 농민 12규약

심장중의강철

[https://youtu.be/h\\_1oYG7toRQ](https://youtu.be/h_1oYG7toRQ)



## 12규약 발표당시 사진

1525년, 독일 농민전쟁이 한창일 시기 슈바벤에서 기독교 농민협회가 발주하였습니다. 그들은 귀족들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말하기 위해 크리스토프 스토펬러등의 개혁가들, 그리고 협회에 있던 농민들이 모여 아주 활발하고 기나긴 토론을 거친 끝에 12개의 규약을 귀족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이 12개의 규약은 책 형태로써 만들어져 무려 2개월 이내에 이만 오천부가 발주되어 신성 로마 제국 곳곳에 퍼질 만큼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농민들의 협회가 만든 이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농민들의 인권을 보장함과 더불어 성경을 인용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보여준 것이 특이점입니다.

- 1.우리 농민 자치지역(코뮌)내의 성직자의 임명권은 우리에게 있으며 그 성직자들이 옳지 못한 짓을 하면 우리는 그를 파직시킬 권리가 있다. 성직자는 아무런 조건없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성직자들은 성경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상한 해석을 붙이는 것이 아닌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해야한다. 오직 성경과 참된 믿음만으로 하느님의 왕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2.십일조는 오직 큰 십일조(성경에서 나오는 십일조)만을 내며 그 외의 작은 십일조들(성경에서 말하는 십일조가 아닌 영주들, 교권층에서 따로 만든 십일조, 즉 뺄뜯는 용)는 사라져야한다. 왜냐면 그 것은 후대의 인간들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이 땅에 있는 가축들은 모두 인간의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값'을 받지 않기로 하셨다.
- 3.하느님께서 귀족들의 의해 자신의 피로써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었다. 그런 해방인들이 다른 동포를 노예로 (농노로)삼는 것을 그 분이 허락하신 적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자유로워져야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자유로워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4.가난한 이들은 사냥도, 어업도 하지말아야한다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가? 이들이 참을성도 없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라고 보는가? 하느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 또한 그런 생각은 '형제'로써 할 생각이 아니다. 하느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부터 새, 물고기, 동물의 대한 권리와 권세를 인간에게 기부하셨다.
- 5.귀족들은 언제나 숲을 가지고 있었다.[1] 가난한 이들이 무언가를 필요로한다면 그들은 그 것을 두배의 값을 주며 사야했다. 이는 옳지 못하며 팔리지 않은 목재들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여 건설, 건축 혹은 장작등으로 쓸 수있게 즉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쓸 수 있게 반환되어야한다.
- 6.날마다 강제노동이 과해지고있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노동의 양은 줄어저야한다.
- 7.귀족은 우리들이 정한 노동량을 강제로 늘리면 안된다.
- 8.모든 밭에서 필요한 만큼의(사실상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소작료(임대료)를 낼 수 없다. 정직한 이들이 땅을 조사하여 불필요한 임대료를 없애 농민들이 착취당하지 않게 해야한다.

9.그대들은 신성모독에 의한 벌금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왔다. 그들은 죄의 유무가 아닌 그들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거짓으로써 처벌을 내렸다.(당시에 영주와 같은 기득층은 농노들 상대로 재판에서 본래보다 높은 벌금을 매기기도 하였다.) 이것이 옳은 처벌이라고 보는가? 우리는 정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오래된 옛 법률(즉 성경)에 따라 정당하게 판단되어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한다.

10.본래 농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했던 밭, 논등이 영지들에게 강제로 할당되었다. 우리는 할당(사실상 강탈)당한 밭, 논등을 다시금 반환받고 싶다.

11.죽음세(Todfall. 일종의 상속세. 그러나 당시 가난했던 농민들에게 있어서 상속세는 현대와 꽤나 다른 의미를 지님)를 면제하라. 더이상 과부와 고아들이 하느님이 주신 명예에 반하여 그들에게 수치스럽게 강탈당하지 않게하라.

12.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결정이다. 하느님 말씀과 맞지않다고 생각하여 '근거'를 들어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해당되는 규약을 삭제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규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누군가가 이 조약에 대해 불만사항을 품는다면 수정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결 것이다.

[1]공동체가 소유했던 숲이 영주들이 강탈하여 그들이 소유하며 비싼 값을 받으며 팔았던 것을 뜻함.

상당히 내용이 중세시대를 감안했을때 급진적인 주장들이였습니다. 공산주의적이면서도 기독교에 근거하였고 또한 '아나키즘적 자치 공동체 연방제'에 근거하였기 때문입니다.(때문에 최초의 기독교 아나키즘적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규약 발표 이후 농민들이 점거했던 곳은 모두 자치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다른 자치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연방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조 바덴뷔르크템베르크에 위치한 '검은 숲', 알자스, 프랑코니아(프랑켄)등의 지역에서는 아주 활발한 자치 공동체 설립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이 주장을 가지고 마틴 루터를 찾아가 우리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폭력적 방법을 쓰지마라! 평화롭게 해결하라!'라 했으면서 동시에 귀족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12 규약을 내세웠는데 그 중 일부는 "너무나 의로워" 하느님을 수치스럽게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들(귀족)에게 호의적이지만 노력하여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하지 않으며 그대들과 최선의 방법으로 타협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중략] 그러나 그대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고 벌금을 더 부과하려는 것 또한 옳지는 않다.

즉 농민들이 내세운 조건이 너무나 의로워서 하느님이 수치스러울 지경이며 그들은 귀족에게 호의적이면서도 노력하여 더 좋은 이가 되려하지 않으며 또한 그대들과 싸우려하지만 그대들도 농민들을 노예로 삼고 벌금 부과하려는 것은 옳지못하다. 었습니다.



1525년 발표된 루터의 논문 '농민과 살인과 약탈의 대한 반대'

그러나 루터는 규약 발표 2달후 5월달, '농민과 살인과 약탈의 대한 반대'라는 논문을 통해서 그는 영주의 편을 들며 '이 경건한 질서를 파괴하려는 농민들을 파괴하라!'라는 말을 적으며 농민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겼습니다.

그렇게 루터와 농민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됩니다. 농민은 뒤통수와 손을 잡으며 뒤통수는 농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죠.

농민들의 주장은 당대에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후대에 여러 세상에서 잔재가 남아 이루어지고있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독립선언서, 프랑스 혁명때 그들의 주장이 '일부'실행되기도 하였으며 1848년 독일 혁명당시에는 아예 이들의 12규약을 공식화 시키면서 이들의 희망이 마침내 3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독일 사람들이 일으킨 가장 위대한 혁명적 시도였다.

